

# 종교 다원주의와 타종교 존중



손봉호 교수 (대표주간)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기아대책기구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다원주의가 일반화되고 있다. 돈과 쾌락추구, 자연과학과 과학기술, 인권 존중 등에는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지만 이념, 철학, 예술, 종교, 윤리 등 나머지 분야는 모두 다원적이고 상대적이 되고 있다. 정설, 표준, 기본, 원칙이 무시되고 대부분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종교에도 다원주의가 유행이다.

이런 풍조 속에서 가장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된 것이 전통적인 신조에 충실한 기독교다.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 (해 4:12)을 믿기 때문이다. 다원주의 시대에 이런 신앙이 어떻게 버티겠는가?

우선 종교다원주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

나는 이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꺼리가 될 수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화여대 철학교 정대현 명예교수가 표현한 명제, “모든 종교는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다원주의다. 영국 신학자 히кс (John Hicks)와 맥커리 (John Macquarrie), 전 감신대 변선환 교수 등이 견지하는 입장이다. 흔히 드는 예가산의 정상(頂上)은 하나인데 그곳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다. 산꼭대기에 오르기 위한 길이 꼭 하나일 필요가 없듯이 구원을 받기 위한 종교도 하나에 국한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히кс는 기독교는 하나님, 이슬람은 알라를 믿고 예배하지만 그들은 모두 “참 존재” (the Real) 혹은 “궁극적인 존재” (the Ultimate)를 의지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세계의 고

등종교들은 하나의 궁극적이며 신비한 신적인 실체에 대해 제각기의 서로 다른 개념과 체험과 반응을 나타내는 것” 이므로 종교들이 상호 배타적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9세기 이란 출신 압둘 바하 (Abdu'l-Baha)가 창시한 바하이교의 종교연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 주장은 따져보면 추상 명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마치 김양과 이양은 다 여자이기 때문에 그 어느 여인과 결혼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과 비슷하다. 실제의 남자는 김양 혹은 이양과 결혼하지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이 이해하는 “하나님”과 이슬람이 이해하는 “알라”는 둘 다 “절대자” (the Absolute) 혹은 히스가 말하는 “참된 자” (the Real)일 수 있다. 또 한 기독교가 바라보는 천국과 불교가 염원하는 열반은 둘 다 “구원”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다르다. 1982년에 변선환 교수가 “익명의 크리스천”, 혹은 “익명의 기독교”란 표현을 사용했을 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불교인들로부터도 심한 비난을 받았다. 불교인들도 익명의 기독교인이란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사실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 외 “다른 이름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여 불교인이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다. 불교인들은 아예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구원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다원주의와 관계해서 종교인, 특히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나 이슬람이 당면하는 실제적인 난제는 “포교”의 문제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포교를 매우 중요한 종교적 임무로 수행하고 있고, 그 때

문에 기독교는 가끔 독선적이고 제국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심지어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도 전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그런 자제는 두 가지 문제를 함축한다. 하나는 자신의 종교를 상대화하므로 종교적 확신을 할 수 있는 공헌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적 광신은 경계해야지만 건강하고 확실한 신앙으로 약자 돌봄, 절제, 근면, 희생, 평화증진 같이 사회를 위해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공헌들은 엄청나다. 과거 공산주의 이념으로 종교를 철저히 탄압했던 사회와 종교 자유를 보장했던 사회를 지금 비교해 보면 종교의 상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서 포교를 자제하는 것은 삶의 목적과 가치와 관계해서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종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은 다음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보다 오히려 개인의 결정권을 더 존중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의 것이든 “강압적”인 방법으로 개종을 요구하지 않은 한, 그리고 다른 종교나 이념을 가진 사람도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솔직하고 겸손하게 표현하고 수용을 권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전도에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도 전도를 받아 개종한 후 자신에게 전도한 사람에게 오히려 매우 감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은 그 종교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동의하면 그 종교의 신봉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누구든지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하고 그 종교의 가르침도 자신의 종교와 동일한 권리와 자격으로 주장되고 포교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로서의 종교다원주의가 함축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종교의 추종자도 자신의 종교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공적으로 다른 종교를 비판할 권리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객관적”인 제 3의 기준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종교상대주의는 불가피하다.

다만 우리는 한 종교의 가르침 가운데 보편적으

로 수용되는 규범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테러, 살인, 인종차별, 여성이나 어린이 인권 무시, 계층차별, 자연환경 파괴 같이 인류가 존중하고 존중해야 하는 규범에 어긋났을 때는 마땅히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부분만 비판할 뿐 그 종교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그 모든 것보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기독교가 사용해야 할 더 좋은 전략은 역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 희생, 봉사, 검소, 겸손에 철저히 충실한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전도의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